

2천년에 原電比重20.4%

石油依存은 35%로 줄어

動資研, 에너지長期需給展望

오는 2,001년의 에너지소비 총 1억3천35t(석유환산)으로 81년의 4천6백5만t에 비해 약 2.8배가 늘어난다. 또 석유의존도는 81년의 57.3%에서 35.1%로 대폭 낮아지며 가정연료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무연탄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유연탄, 가스, 원자력 등의 대체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動資研(소장 朴育植)이 12월 7일 中長期에너지정책협의회에 제시한 「에너지長期展望과 政策」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의 개편, 에너지가격구조의 합리화, 연료대체 및 절약에 대한 금융·제제지원, 환경규제강화 등 여건의 변화로 크게 뒤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경제정책수립과 관련 제시된 이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01년에 原油는 하루 90만배럴, LPG와 LNG는 연간 각각 2백60만t과 5백만t, 유연탄은 연간 5천5백40만t으로 81년에 비해 原油는 1.8배, LPG는 26배, 有煙炭은 7.4배로 늘어나게 되며 發電設備은 81년보다 4.7배가 늘어난 4만6천3백MW에 이를 전망이다.

長期 에너지 需給構造의 특성은 가정과 상업부문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스·電力의 수요가 증

가하고 石炭비중이 줄어들며 수송부문은 승용차 보급율의 증가로 에너지 수요증가를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源別 構成比는 81년의 석유 57.3%, 무연탄 22.4%, 유연탄 10.7%, 가스 1.1%, 원자력 1.6%, 기타 薪炭 6.9%에서 2,001년에는 석유 35.1%,

무연탄 6%, 유연탄 28%, 가스 8%, 원자력 20.4%, 기타 薪炭 2.5%등으로 바뀌게 된다.

動資研은 이같은 장기전망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석유 가격구조의 국제수준화, 그리고 석탄산업의 육성 등 대책이 시급하며 전력요금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1년의 석유의존도를 32.2%까지 낮출계획이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35.1%로 脫石油정책을 다소 늦추고, 유연탄의 경우 2,001년의 수요가 7천만t에 달할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 장기전망에서는 환경문제 등으로 5천5백40만t으로 축소했다.

核燃料國産化에 4억8천만원

科技處, 研究事業에 220억 策定

84년도 國策연구개발사업의 윤곽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84년도 國策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정부가 2백20억원을 확보, 이중 1백20억원을 국가주도 연구과제에, 1백억원은 기업주도 과제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주도과제의 경우는 컴퓨터 및 반도체분야에 38억4천만원, 수출거점 제품개발을 주로 수행하게 될 정밀화학분야 12억원, 자동차 관련기술과 기계부품기술의 개발에 주력할 기계공업분야 8억원, 에너지 및 자원분야 21억원이 배분됐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분야는 核燃料國産化기술개발에 4억8천만원, 전략광물자원개발에 12억원, 원격탐사기술 국산화에 4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주도과제에 투입될 1백억원은 중소기업에 60억원, 대기업에 40억원씩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주도國策연구 개발사업의 연구비부담비율은 중소기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70%, 기업30%씩, 대기업과제의 경우는 정부 30%, 기업 70%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기업주도과제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임, 과제를 선정토록할 계획이다.

原電技術의 自立위해 91년까지 2千餘名養成

政府는 오는 91년까지 發電所와 관련 기술자립화를 위해 2,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科技處에 따르면 原電11·12號機의 建設이 끝나는 오는 91년까지 韓國型標準發電所의 자력설계, 건설능력 확보 등 原子力發電所 國産化 技術을 높이기 위해 5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86년까지 1,800名, 91년까지 2,400名을 양성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政府는 韓國電力技術(株)를 중심으로 原電技術엔지니어링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原電의 국산화개발체제 및 기술능력을 조직화할 방침이다.

또한 政府는 오는 91년까지 중점과제로 전문업체 인력양성과기자재생산업체 육성을 위해 韓國重工業을 주계약자로 하고 보조기자재생산업체를 제열화할 계획이다.

古里原電 美國水準웃돌아 INPO 技術陣 정밀점검

美國原子力運轉協會(INPO) 기술진이 韓國電力公社의 요청으로 來韓하여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동안 古里原子力發電所의 운전실태를 종합점검했다.

美國의 루아거박사 등 7명의 INPO종합점검팀은 現在 稼動되고 있는 古里原子力의 기술, 운전, 보수, 방사선 방어, 비상대책 훈련, 건설품질보증 등 7개 분야에 걸쳐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古里原電은 대체로 美國 原子力發電所의 平均水準以上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韓電은 작년 2월에 INPO에 정식가입하여 NOTEPAD 단말장치 운용에 의해 INPO로부터 매일 美國內 원자력발전소 경

험 정보 등 25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부서와 古里 및 月城原子力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原電 3號機 核物質 점검 IAEA協定 이행을 확인

작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점검관 바다씨 등 3명이 月城의 原子力3號機를 방문, 核燃料 이동지역 및 저장지역 감시카메라의 稼動狀態를 확인한 후, 核화자료를 토대로 핵물질의 이동사항과 재고현황을 점검했다.

IAEA점검반의 안전조치검사와에 따르면 韓電은 IAEA와 맺은 안전조치협정대로 핵물질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國內에 반입된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平和的 目的인 發電燃料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Breeder Reactor 세미나

ANS 韓國支部(會長: 金鍾珠)는 83년 12월 9일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社長: 鄭根謨)의 後援으로 美國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Nuclear Energy 部長인 Herber Kouts박사를 特別 초빙하여, KOPEC 세미나室에서 "History of Breeder Reactors in the United States"라는 主題로 세미나를 가졌다.

原子力關係 면허시험

韓國에너지연구소가 실시한 제 1회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및 제 27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

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이 지난 12월 4일 경기공업개발대학에서 있었다.

核燃料 14名, RI關係 91名 등 총 105명이 응시한 이번 면허시험의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RI일반: 오세현, 김문성, 우광선, 정진성, 김진년, 임종규, 원승환, 노환수, 박영목, 김종국, 김현영 △RI특수: 손명휘 △RI감독: 이기창 △핵연료 필기시험 합격자: 하정우, 김풍오, 박상덕

原電放射能 防災훈련실시 韓·美合同으로 古里에서

'83韓·美合同 原電放射能 防災 훈련이 작년 11월 29일 古里원자력 본부에서 실시되었다.

고리원자력1호기에 방사능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韓·美 核非常計劃에 의거, 발전소 및 기술지원단(KAERI), 美國原子力규제위원회(NRC)와 古里原子力本部間의 통신(電話, 테렉스, 팩시밀 등)능력과 기술지원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科技處, 한국에너지연구소 관계관, 韓電의 관계직원 그리고 美 NRC측 참관인 등 모두 118명이 참여했다.

특히 통신수단에 의한 기술지원체제의 확인에 중점을 둔 이번 훈련에는 美 NRC와 비상발령 및 훈련종료통보를 위한 3회에 걸친 국제전화와 발전소 운전상태 통보에 수반된 팩시밀 送信을 두차례 실시, NRC의 기술지원을 직접 받아 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다고 評價되고 있다.